

도시 거주 일반노인들의 시간 사용 실태조사

이주현*, 박수현**, 유은영**, 정민예**, 조덕연***

*단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 연구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의 일상생활 활동 참여시간을 통계청 (2009)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시간 조사 분류표를 통해 알아보고,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시간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 대상자는 도시지역 거주 일반노인 155명으로 하였으며, 2009년 통계청에서 사용한 일상생활시간조사표 및 일반적 특성이 포함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가 배포된 후 48시간 동안의 일상생활 활동기록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이 완성한 일상생활 활동기록지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9가지의 행동분류표에 나온 행동들로 분류하여 각각의 행동에 따른 이들간의 총 시간사용량을 분으로 계산하였다.

결과 : 도시거주 노인들의 개인유지 활동 참여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 참여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남성 노인들이 일과 학습활동 참여시간이 많았고, 여성 노인들은 가정관리,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참여시간이 많았다. 또한 65세 이하의 노인들은 일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66세 이상의 노인들은 교제 및 여가활동 참여시간이 많았다. 중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개인유지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동 및 일에,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종합적으로 76~80세 여성 노인들이 참여 및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많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이 일에, 소도시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가 기능적인 독립성, 사회적 참여유지, 자원봉사 및 여가활동을 노인들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도시노인, 시간사용, 일상생활활동, 작업치료사

I. 서 론

과학 기술 및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갑용, 송원호, 강장석, 이재희와 조용근, 2010). 이처럼 전체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년기의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 시기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교신저자 : 박수현(parksoohyun@yonsei.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임.

|| 접수일: 2012. 1. 30

|| 심사일: 2012. 2. 6

|| 게재승인일: 2012. 5. 2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양영순, 2007).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작업수행시간들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은 작업치료적에서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다(Fricke & Unsworth, 2001). 하지만 시간 사용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불균형적인 작업수행 패턴의 결과로 나머지 작업영역들을 수행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되어 건강 및 삶의 질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홍승표, 이지은과 박선희, 2008).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은 현대인이 의미 있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생활양식 및 생활환경,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개인의 활동유형과 시간 사용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김영근, 2006; 최윤지, 김경미, 이진영과 강경하, 2007). 그러므로 시간사용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의무적인 활동과 비의무적인 활동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선택하는지 알려주는 작업균형(occupational balance)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며(홍승표와 이지연, 2010; Backman, 2005), 나아가 노인들의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통해 시간에 얽매이거나 역할부담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목적 있는 활동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즐길 수 있게 해준다(Chilvers, Corr, & Singlehurst, 2010). 또한 시간사용은 성별이나 연령 또는 경제력에 따라 시간의 소비방식이 다르며, 이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에 따라라도 시간사용 행위주체의 생활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생활시간내용의 배분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특징에 따라 시간사용은 생활양식과 생활태도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이해가 노인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나 욕구(needs)를 알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주현, 2007; 이은택, 2010). 다시 말해 사회적 활동 영역으로부터 은퇴한 노인들 중 많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문제들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으며,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남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조명희, 2007). 그러므로 노인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경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력,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주지역에 따른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사용 형태와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신숙(2011)은 전남의 은퇴한 노인 225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여성 노인보다 운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남성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TV 및 라디오 시청/청취, 가사노동, 참여나 봉사활동 그리고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2010)의 연구에서는 40~50세 연령대부터 장애를 가지게 된 노인 20명에게 시간사용분석, 시간관리, 동기유발, 활동의 적절한 배치 그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성된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효율적인 시간사용중재가 삶의 질, 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간사용을 알아보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일반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시간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므로 노인들이 참여하는 활동과 시간사용의 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농촌에 비하여 도에서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에서 살아가게 되는 노인의 절대적, 상대적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나갈 것이므로(한경혜와 윤성은, 2009)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시간사용 및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의 일상생활 활동 참여시간을 통계청(2009)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시간 조사 분류표를 통해 알아보고,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시간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작업치료사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활동들을 계획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치매진단 경험이 없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신체질환이 없으며,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도시지역 거주 일반노인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표 1에 제시되었다. 성별 구성은 남자가 81명(52.3%), 여자가 74명(47.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9.53 ± 4.81 세였다.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대도시 70명(45.2%), 중도시 13명(8.4%), 소도시 72명(46.5%)이 모집되었다. 대상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57명(36.8%), 대학교 졸업자가 46명(29.7%)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인이 80명(5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1).

2. 연구 절차

본 연구 자료는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집하였으며, 통계청(2007)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서울, 광주), 인구 50~100만명 사이의 중도시(성남, 진주), 그리고 인구 20~50만명 사이의 소도시(순천, 원주) 총 6개 지역의 해당 복지회관, 교회 및 노인대학을 우선 연락한 후 각 기관장이나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각 기관 소속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가 배포된 후 이틀 동안의 일상생활 활동기록지를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관 기관장을 통해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자료는 총 233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외한 15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5)

	구분	빈도(%)
성별	남	81 (52.3)
	여	74 (47.7)
연령	60~65세	39 (25.2)
	66~70세	61 (39.3)
	71~75세	36 (23.2)
	76~80세	13 (8.4)
	81~85세	6 (3.9)
지역	대도시	70 (45.2)
	중도시	13 (8.3)
	소도시	72 (46.5)
학력수준	무학	4 (2.6)
	초등학교	25 (16.1)
	중학교	18 (11.6)
	고등학교	57 (36.8)
	대학교	46 (29.7)
	대학원이상	5 (3.2)
종교	기독교	80 (51.6)
	무교	23 (14.8)
	불교	19 (12.3)
	유교	1 (0.6)
	천주교	31 (20.0)
	기타	1 (0.7)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26개 문항, 그리고 대상자가 이틀 동안 참여한 활동을 기록하는 일상생활시간조사로 구성되었다(통계청, 2009).

1) 일상생활시간조사

일상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이 1999년 제 1차 조사에 이어 5년 주기로 국민들의 생활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조사로서 국민들이 이틀 동안 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09). 2009년 일상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된 행동분류표는 행동 목적에 따라 행동을 9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144개 소분류로 구분해 놓고 있다(표 2).

이 중에서 대분류 9개 행동인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및 하위항목인 50개 중분류가 통계청(2009)에서 국민들의 생활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주요 행동별 항목이며, 이는 노인들의 주요 생활시간을 알아보고 분석하기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간일지는 통계청이 2009년 9월에 실시한 제 2차 일상생활시간조사에 포함된 자료로 대상자가 설문지를 받은 당일 아침 6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주로 한 행동을 연속 이틀 동안 총 48시간 동안의 일상생활 활동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직접 시간일지에 기입한 행동들을 행동분류표를 보고 분류한 뒤 각각의 행동에 따른 이틀간의 총 시간사용량을 분으로 계산하였다.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분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작업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평가자 1명에게 임의로 선택된 대상자 30명의 일상생활조사표에 대한 측정을 행동분류표를 보고 각 활동에 대한 시간계산 및 활동에 대한 분류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자료는 Pearson's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유지($r=.96, p<.01$), 일($r=.96, p<.01$), 가정관리($r=.95, p<.01$), 가족 보살피기($r=.39, p<.05$), 참여 및 봉사활동($r=.94, p<.01$), 교제 및 여가활동($r=.48, p<.01$), 이동($r=.54, p<.01$), 기타($r=.45, p<.05$) 활동영역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시간조사에 근거한 활동 대 분류에 따른 평균참여시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지역, 최종학력과 9가지 활동참여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t -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활동참여시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상생활 활동 분류에 따른 활동 참여시간

대상자는 활동조사표에 나와 있는 50개의 중분류 항목들에서 수면 887.1 ± 154.0 분, 미디어 이용 360.8 ± 223.2 분, 식사 및 간식 303.7 ± 134.7 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220.9 ± 199.1 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209.2 ± 215.0 분 순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였고, 9가지 대분류 항목들에서는 개인유지 $1,292.0 \pm 238.9$ 분, 교제 및 여가활동 $1,034.0 \pm 412.4$ 분, 가정관리 214.7 ± 215.4 분, 일 151.2 ± 364.4 분 순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에 따른 참여시간 양상

1)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

생활시간조사의 9가지 일상생활활동의 대분류에 대한 대상자들의 참여시간 중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참여활동은 일($t=3.28, p<.05$), 학습($t=2.16, p<.05$), 가정관리($t=-10.46, p<.05$), 참여 및 봉사활동($t=-2.03, p<.05$), 교제 및 여가활동($t=-2.12, p<.05$)으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일과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평균적으로 사용하였고, 가정관리,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여성 노인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 일상생활 활동 분류에 따른 48시간 동안의 활동 참여시간

(N=155, 단위:분)

활동분류	M ± SD
I. 개인유지	1292.1 ± 238.9
수면	887.1 ± 154.0
식사 및 간식	303.7 ± 134.7
개인관리	52.3 ± 68.4
건강관리(의료적)	28.4 ± 66.4
기타 개인유지	20.6 ± 29.5
II. 일	151.2 ± 364.4
고용된 일 및 자영업	125.2 ± 352.9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0.8 ± 96.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3.2 ± 39.4
기타 일 관련행동	2.1 ± 25.7
III. 학습	15.5 ± 61.9
학생의 정규수업	12.2 ± 56.0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3.3 ± 26.8
IV. 가정관리	214.7 ± 215.4
음식준비 및 정리	90.7 ± 129.8
의류관리	19.6 ± 52.1
청소 및 정리	49.2 ± 61.6
집 관리	20.7 ± 61.3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30.1 ± 53.8
가정경영	3.9 ± 16.3
기타 가사일	0.6 ± 5.4
V. 가족 보살피기	12.8 ± 48.8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3.7 ± 21.7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1.7 ± 15.3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8 ± 9.6
그 외 가족 보살피기	6.7 ± 35.6
VI. 참여 및 봉사활동	27.4 ± 75.5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3.0 ± 22.6
참여활동	1.5 ± 18.5
자원봉사	22.9 ± 71.1
VII. 교제 및 여가활동	1034.0 ± 412.4
교제활동	70.6 ± 133.9
일반인의 학습	35.3 ± 87.0
미디어 이용	360.8 ± 223.2
종교활동	106.8 ± 171.1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3.9 ± 22.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209.2 ± 215.0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220.9 ± 199.1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	0.3 ± 3.2
기타 여가 관련 행동	26.3 ± 116.1
VIII. 이동	95.3 ± 96.9
개인유지 관련 이동	3.0 ± 15.8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16.8 ± 49.0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5 ± 6.4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4.4 ± 22.6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및 그 외 여가 활동 관련 이동 (미디어, 종교, 관람, 스포츠, 취미 등)	29.7 ± 55.4
기타 이동	40.8 ± 77.2
IX. 기타	37.5 ± 126.2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조사담당자와 전화통화, 조사 관련 대화등)	1.8 ± 10.0
그 외 기타	35.7 ± 126.1

표 3. 성별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 (N=155)

	남	여	<i>t</i>
	<i>M</i> ± <i>SD</i>	<i>M</i> ± <i>SD</i>	
개인유지	1271.4 ± 222.1	1314.9 ± 255.6	-1.13
일	237.8 ± 451.7	56.5 ± 197.8	3.28*
학습	25.3 ± 79.3	4.7 ± 31.2	2.16*
가정관리	80.1 ± 107.6	361.9 ± 207.7	-10.46*
가족 보살피기	6.8 ± 41.4	19.5 ± 55.3	-1.60
참여 및 봉사활동	15.4 ± 49.3	40.4 ± 95.0	-2.03*
교제 및 여가활동	80.1 ± 107.6	361.9 ± 207.7	2.12*
이동	104.7 ± 98.6	85.0 ± 94.5	1.27
기타	39.0 ± 142.9	35.8 ± 105.9	.16

**p*<.05

2) 연령군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 시간

연령군에 따라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을 비교한 결과 일($F=4$, $p<.05$), 학습($F=3.1$, $p<.05$), 교제 및 여가활동($F=4.6$,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연령군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ukey's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6~70세 사이의 대상자(75.1 ± 249.7)에 비해 65세 이하의 대상자(334.9 ± 511.8)가 일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학습활동은 76~80세 사이의 대상자(66.9 ± 108.6)가 65세 이하(0.0 ± 0.0) 및 71~75세 사이의 대상자(11.1 ± 47.4)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은 65세 이하의 대상자(816.7 ± 403.5)에 비해 66~70세(1056.6 ± 370.4), 71~75세(1144.2 ± 472.4), 76~80세(1230.8 ± 273.3), 81~85세(1130.0 ± 199.3)의 대상자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3) 최종 학력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 시간

최종 학력에 따라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을 비교한 결과 오직 가정관리($F=4.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학력집단에서 이러한 차이

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ukey's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대상자(353.6 ± 228.0)가 대학교인 대상자(125.9 ± 186.4)에 비해 가정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4. 연령군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 비교

(N=155)

사회적 여가활동	65세 이하 $M \pm SD$	66~70세 $M \pm SD$	71~75세 $M \pm SD$	76~80세 $M \pm SD$	81~85세 $M \pm SD$	F
개인유지	1366.2 $\pm$ 53.1	1289.8 $\pm$ 250.0	1225.6 $\pm$ 223.6	1226.2 $\pm$ 144.9	1376.7 $\pm$ 160.3	2.1
일	334.9 $\pm$ 511.8	75.1 $\pm$ 249.7 ^a	149.4 $\pm$ 366.0	32.3 $\pm$ 79.3	0.0 $\pm$ 0.0	4.0*
학습	0.0 $\pm$ 0.0 ^b	17.1 $\pm$ 73.0	11.1 $\pm$ 47.4 ^b	66.9 $\pm$ 108.6	15.0 $\pm$ 36.7	3.1*
가정관리	209.2 $\pm$ 235.9	242.0 $\pm$ 209.4	203.6 $\pm$ 219.2	183.9 $\pm$ 197.0	105.0 $\pm$ 151.6	.7
가족보살피기	24.4 $\pm$ 68.2	5.1 $\pm$ 27.2	7.2 $\pm$ 30.3	16.2 $\pm$ 58.2	43.3 $\pm$ 106.1	1.7
참여 및 봉사활동	16.9 $\pm$ 52.7	32.6 $\pm$ 84.3	27.2 $\pm$ 69.0	27.7 $\pm$ 99.9	41.7 $\pm$ 102.1	.3
교제 및 여가활동	816.7 $\pm$ 403.5	1056.6 $\pm$ 370.4 ^a	1144.2 $\pm$ 472.4 ^a	1230.8 $\pm$ 273.3 ^a	1130.0 $\pm$ 199.3 ^a	4.6*
이동	103.6 $\pm$ 103.8	96.9 $\pm$ 103.5	89.2 $\pm$ 81.0	80.8 $\pm$ 93.8	93.3 $\pm$ 100.3	.2
기타	9.7 $\pm$ 30.8	61.8 $\pm$ 188.6	25.3 $\pm$ 59.0	24.6 $\pm$ 39.7	71.7 $\pm$ 111.1	1.3

* $p<.05$

^a: 65세 이하를 기준으로 평균차이가 나는 경우

^b: 76~80세를 기준으로 평균차이가 나는 경우

표 5. 최종 학력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 비교

(N=155)

사회적 여가활동	무학 $M \pm SD$	초등학교 $M \pm SD$	중학교 $M \pm SD$	고등학교 $M \pm SD$	대학교 $M \pm SD$	대학원이상 $M \pm SD$	F
개인유지	1277.5 $\pm$ 239.8	1294.8 $\pm$ 239.4	1254.4 $\pm$ 252.2	1279.0 $\pm$ 238.0	1325.0 $\pm$ 247.2	1274.0 $\pm$ 192.6	.3
일	0.0 $\pm$ 0.0	72.0 $\pm$ 224.9	265.6 $\pm$ 562.2	172.5 $\pm$ 374.4	152.8 $\pm$ 346.1	0.0 $\pm$ 0.0	.9
학습	0.0 $\pm$ 0.0	10.0 $\pm$ 50.0	0.0 $\pm$ 0.0	9.0 $\pm$ 40.3	35.7 $\pm$ 95.7	0.0 $\pm$ 0.0	1.5
가정관리	202.5 $\pm$ 141.5	353.6 $\pm$ 228.0	242.8 $\pm$ 180.8	215.6 $\pm$ 219.7	125.9 $\pm$ 186.4 ^a	234.0 $\pm$ 194.8	4.1*
가족 보살피기	0.0 $\pm$ 0.0	18.8 $\pm$ 53.7	25.6 $\pm$ 75.1	5.6 $\pm$ 36.3	16.1 $\pm$ 51.4	0.0 $\pm$ 0.0	.7
참여 및 봉사활동	20.0 $\pm$ 40.0	34.8 $\pm$ 91.0	35.6 $\pm$ 90.1	31.6 $\pm$ 85.1	18.5 $\pm$ 51.5	0.0 $\pm$ 0.0	.4
교제 및 여가활동	1270.0 $\pm$ 259.5	1016.8 $\pm$ 398.9	976.1 $\pm$ 442.1	1014.6 $\pm$ 425.1	1051.7 $\pm$ 419.0	1198.0 $\pm$ 303.4	.5
이동	110.0 $\pm$ 127.3	62.4 $\pm$ 71.9	64.4 $\pm$ 75.6	98.8 $\pm$ 104.2	115.7 $\pm$ 101.9	132.0 $\pm$ 85.3	1.6
기타	0.0 $\pm$ 0.0	19.2 $\pm$ 48.0	10.0 $\pm$ 25.2	55.8 $\pm$ 165.8	38.3 $\pm$ 132.3	42.0 $\pm$ 57.6	.6

* $p<.05$

^a: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평균 차이가 나는 경우

4) 거주 지역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 시간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을 비교한 결과 개인유지($F=3.9, p<.05$), 일($F=4.4, p<.05$), 교제 및 여가활동($F=9.3, p<.05$), 이동($F=4.6, p<.05$)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지역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ukey's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도시(1433.1 ± 330.9)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소도시(1248.1 ± 194.1)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개인유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일은 대도시(240.1 ± 472.3)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소도시(63.6 ± 184.9)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은 소도시(1177.4 ± 364.6)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대도시(895.9 ± 409.3)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동은 대도시(114.3 ± 107.6)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중도시(30.8 ± 62.6)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5)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과 9가지 일상생활 활동별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정관리

활동이 성별($F=27.8, p<.05$)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개인유지($F=3.3, p<.05$)와 참여 및 봉사활동($F=8.7, p<.05$), 이동($F=4.1, p<.05$)에서는 거주지역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성별과 연령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참여 및 봉사활동($F=4.5, p<.05$)과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성별과 거주지역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일($F=3.6, p<.05$), 교제 및 여가활동($F=4.7, p<.05$)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76~80세 여성 노인(120.0 ± 37.0)이 65세 이하(18.9 ± 17.9), 66세~70세(35.5 ± 16.8), 71~75세(35.8 ± 19.2), 81~85세(0.0 ± 0.0) 여성 노인과 65세 이하(18.4 ± 22.0), 66~70세(8.7 ± 25.9), 71~75세(6.1 ± 27.1), 76~80세(0.0 ± 0.0), 81~85세(41.7 ± 41.0) 남성 노인보다 참여 및 봉사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418.5 ± 63.2)이 소도시(49.8 ± 64.9), 중도시(151.0 ± 141.3)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과 소도시(32.0 ± 91.2), 중도시(81.1 ± 143.3), 대도시(41.3 ± 66.6)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소도시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1325.3 ± 72.3)이 중도시(1024.0 ± 157.4), 대도시(897.5 ± 70.4)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과 소도시(1022.3 ± 101.6), 중도시(1017.8 ± 159.7), 대도시(1039.5 ± 74.2)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보다 교제 및 여가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다(표 7).

그 외에 성별과 연령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개인유지,

표 6. 거주 지역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 비교

사회적 여가활동 여가활동	대도시 $M \pm SD$	중도시 $M \pm SD$	소도시 $M \pm SD$	F
개인유지	311.3 ± 251.8	1433.1 ± 330.9^a	1248.1 ± 194.1	3.9*
일	240.1 ± 472.3^a	157.7 ± 356.2	63.6 ± 184.9	4.4*
학습	11.6 ± 63.1	0.0 ± 0.0	22.1 ± 66.0	.9
가정관리	209.0 ± 219.8	254.6 ± 211.4	212.9 ± 214.0	.3
가족보살피기	17.9 ± 57.4	10.7 ± 38.8	8.3 ± 40.7	.7
참여 및 봉사활동	24.0 ± 83.4	0.0 ± 0.0	35.6 ± 73.3	1.4
교제 및 여가활동	895.9 ± 409.3^a	983.9 ± 442.9	1177.4 ± 364.6	9.3*
이동	$114.3 \pm 107.6b$	30.8 ± 62.6	88.5 ± 85.3	4.6*
기타	57.7 ± 180.3	7.7 ± 27.7	23.2 ± 45.2	1.7

* $p<.05$

^a: 소도시를 기준으로 평균 차이가 나는 경우

^b: 중도시를 기준으로 평균 차이가 나는 경우

표 7.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참여시간 비교

(N=155)

사회적 여가활동	성별	연령	거주지역	성별x연령	성별x거주지역	연령x거주지역
개인유지	.053	.486	3.258*	1.029	.637	1.062
일	1.597	1.318	1.594	.161	3.558*	.677
학습	.914	.309	.360	.455	.703	.594
가정관리	27.818*	.757	1.665	.210	.202	1.175
가족보살피기	.016	.257	.900	1.086	.042	1.044
참여 및 봉사활동	1.585	.593	8.713*	4.516*	2.576	2.082
교제 및 여가활동	.641	.686	1.661	.748	4.646*	1.799
이동	1.477	.126	4.061*	1.193	.878	.143
기타	.004	.451	1.134	.134	.540	.511

* $p<.05$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거주지역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개인유지,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 기타와 유의미하지 않았고, 연령과 거주지역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와 유의미하지 않았다.

IV. 고 찰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일반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하여 작업치료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 활동을 계획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생활시간조사표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유형 및 노인들의 시간사용 비중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유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 교제 및 여가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2009)에서 발표한 60대 이상 대상자의 평균 참여 시간과 동일한 결과로 노년기에는 직장으로부터 은퇴하여 의무적 노동시간이 감소함과 더불어, 가정적 책임의 감소로 인해 여가 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노화로 인한 기력의 쇠퇴로 수면을 많이 취하거나 개인유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홍성희, 2002). 이러한 결과는 노인 재활치료에 있어서 일상생활활동인

개인유지의 독립성이 매우 핵심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작업치료가 일상생활활동인 개인유지의 독립성을 위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홍승표, 이지전과 이상옥, 2007).

성별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활동 시간사용을 분석한 결과 남성 노인들이 여성 노인들에 비해 일과 학습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가정관리,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에는 적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편은 가장 그리고 생산노동자로서 가족의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랜 생활양식 및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김수진, 2011). 또한 65세 이하의 노인들이 일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66세 이상의 노인들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가 65세 이하 연령대 노인들에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노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전재일과 김효정, 2008). 최종학력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활동 시간사용을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 대상자가 대학교인 대상자보다 가정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는 이은택(2010) 연구에서 대학교 졸업 노인들은 초등학교 졸업이하인 노인들에 비해 가정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거주지역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활동 시간에서는 중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개인유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일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는 강신옥과 방혜선(2010)연구에서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노인일자리 참여효과가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미약하나마 더 높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본 연구의 설문지에 참여한 대도시 노인들이 소도시 노인들보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통이 혼잡한 대도시 환경 또한 대도시 거주 노인들이 중도시 거주 노인들보다 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교제 및 여가활동은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이외 도시에서의 경제적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 인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관 설립 및 여가공간 확장 등 사회적인 차원의 지지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Chen et al., 2005). 또한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심리적인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으며, 친목도모를 중요시 하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박종천, 2011).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9가지 일상생활활동 시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76~80세 여성 노인들이 참여 및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고령 여성 노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이은숙, 2010). 또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이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반면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보다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 고독감의 해소, 자아 존중감의 실현, 자아정체성 유지, 생활만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가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의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

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일과 여가활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김보현과 안영선, 2008).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 지역이 6개 지역인 대도시(서울, 광주), 중도시(성남, 전주), 소도시(순천, 원주)로 분류할 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대상자 수가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도시에 거주하고 특정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고학력자인바, 일반 노인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제시한 생활시간조사표가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평가 및 판단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노인들의 실제 생활시간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학습이 여가관련 학습인지 정규직 학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통계청에서 정의한 학습과는 다르게 연구자가 임의로 노인대학 및 복지관 학습을 행동분류표의 학습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학습을 정규 학습과 여가관련학습으로 분류하여 시간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생활시간 패턴이 비교적 일정할 수 있지만,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패턴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 48시간 동안 노인들의 시간사용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요일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주중에 생활하는 시간과 주말에 생활하는 시간을 각각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앞으로의 연구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시간에 대해 알 수 있는 설문지 및 평가방안을 개발하고 분석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방적 및 치료적 지침서를 이를 토대로 성립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일반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하여 작업치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계획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작업치료가 기능적인 독립성, 사회적 참여유지, 위험요소 예방, 자원봉사 및 여가활동을 노인들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155명의 만60세 이상의 도시거주 노인들에게 이들간의 일상생활 활동기록지(통계청, 2009)를 통해 일상생활 활동 분류 및 활동 참여시간형태에 대해 조사하여 노인들의 생활시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통합했을 때 9가지 일상생활활동 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76~80세 여성 노인들이 참여 및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이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반면 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일반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 활동 분류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하여 작업치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계획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작업치료가 기능적인 독립성, 사회적 참여유지, 위험요소 예방, 자원봉사 및 여가활동을 노인들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신옥, 방혜선. (2010).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연구: 충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9, 287-309.
- 김보현, 안영선. (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5(1), 141-160.
- 김수진. (2011).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서울.
- 김영근. (2006). 시간 사용 분석과 활동 균형에 관한 연구. 대구보건대학논문집, 26, 271-288.
- 김영근. (2010). 장애인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사용중재 효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4(4), 205-224.
- 김주현. (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회지, 27(4), 739-754.
- 박종천. (2011).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395-415.
- 양영순. (2007).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시간사용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1-26.
- 이갑용, 송원호, 강장석, 이재희, 조용근. (2010). 고령화 시대 노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리뷰, 1(1), 147-162.
- 이신숙. (2011).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35-58.
- 이은숙. (2010).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7(2), 19-43.
- 이은택. (2010).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교, 서울.
- 전재일, 김효정. (2008).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생활변화. 사회복지개발연구, 14(1), 35-62.
- 조명희. (2007). 노년기 여가활동: 노년기 여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5(1), 209-222.
- 최윤지, 김경미, 이진영, 강경하. (2007). 농업인 부부의 생활시간 조사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4(1), 231-247.
- 통계청. (2007). 2007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09). 2009 생활시간조사. 서울: 통계청.
- 한경혜, 윤성은. (2009). 도시노인의 여가공간과 생활세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103-121.
- 홍성희. (2002). 노인의 생활시간배분 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31.
- 홍승표, 이지은, 박선희. (2008). 재활병원에 입원한 척수손상환자들의 작업수행 문제들과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4), 89-98.
- 홍승표, 이지연. (2010). 한국인의 생애주기별 작업영역에 대한 시간사용.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1), 95-106.
- 홍승표, 이지전, 이상욱. (2007).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일상생활활동과 관련된 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2), 79-89.
- Backman, C. (2005). Occupational balance. In M. Law, C. Baum, & W. Dunn (Eds.), *Measuring occupational performance* (2nd ed., pp. 287-300). Thorofare, NJ: Slack.

- Chen, R., Wei, L., Hu, Z., Qin, X., Copeland, J. R. M., & Hemingway, H. (2005). Depression in older people in rural China.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5(17), 2019–2025.
- Chilvers, R., Corr, S., & Singlehurst, H. (2010). Investigation into the occupational lives of healthy older people through their use of time.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7(1), 24–33.
- Fricke, J., & Unsworth, C. (2001). Time use and importance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48(3), 118–131.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ime Use and Type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Non Disabled Urban Elderly

Lee, Joo-Hyun^{*}, M.S., O.T., Park, Soo-Hyun^{**}, Ph.D.,
Yoo, Eun-Young^{**}, Ph.D., O.T., Jung, Min-Ye^{**}, Ph.D., O.T.,
Cho, Duk-Youn^{***}, M.S.,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nkook University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ie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activities and amount of time invested in such activities of a sample of non-disabled elderly persons.

Methods : The sample consisted of 155 participants 60 years and older. The participants completed a Time Use Survey. Each participant reported the activities they engaged in for two consecutive days. Their responses were classified and the amount of time spent was calculated in minute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ticipants spent most time sleeping and doing household chores. In addition, men spent more time on work and learning, but women spent most time on family care, volunteer activities, and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Elderly participants under the age of 65 spent more time on work, while those 66 years and older invested more time on relationship and leisure activities. Finally, elderly men residing in large cities engaged more in work, while elderly men residing in small cities spent more time on relationship and leisure activitie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occupational therapists should consider activity management according to gender, age, and city size. It is hoped that such considerations will contribute to efficient time management in current aging societies.

Key words : Activities of daily living, Occupational therapist, Time use, Urban elderly

부록. 일상생활시간조사 활동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의료적) 기타 개인유지	수면, 낮잠, 졸음 가족, 혼자, 가족 외 사람과의 식사 개인위생, 외모관리, 이·미용 자가 치료, 의료서비스, 아파서 쉽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 제외)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일 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 관련 행동	주업, 부업, 일 중 휴식, 일 관련 행동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구직활동 일 관련 직접, 무점포 쇼핑
학습	학습의 정규수업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학습 관련 물품구입	수업, 휴식, 학교에서 학습 및 행사 정규수업 외 수강, 학교 외에서 학습 학습 관련 직접, 무점포 쇼핑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식사준비, 설거지, 식후정리 세탁물 널기, 옷 정리, 다림질, 의류수선 방, 물품 정리, 집안청소, 그 외 청소 가재도구, 집 손질 및 관리, 세차 생활용품, 내구재 관련 직접, 무점포 쇼핑 가계부 정리, 가정계획, 은행 일보기
가족보살피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놀아주기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공부 봐주기 배우자 간호, 기타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간호, 보살피기 그 외 가족 간호,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참여활동 자원봉사	소득이 있는 활동, 가사활동 돕기 의무적, 자발적 참여활동 재해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헌혈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행동	가족, 친척과의 교제, 인터넷 교제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취업 관련 학습 신문, 잡지, TV, 비디오, 라디오, 인터넷 개인적 종교 활동, 종교 집회, 모임 참가 영화, 연극, 콘서트, 박물관, 스포츠 관람 산책, 등산, 개인운동, 스포츠, 레저 활동 독서, 컴퓨터 게임, 취미활동, 유흥, 쉽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직접, 무점포쇼핑
이동 기타	개인유지, 일, 학습, 가족보살피기, 봉사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 출퇴근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담당자와 전화통화, 조사관련 대화), 그 외 기타	